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0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3월 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정리해고자 17명 전원 원직복직 합의

피엘에이지회 정리해고자 17명이 3월 6일부로 전원 원직복직했다. 작년 12월 5일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시행되고 난 후 3개월간의 투쟁 끝에 큰 성과를 이뤘다. 조합원들이 해고자, 비해고자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투쟁한 결과이다. 피엘에이지회는 정리해고 투쟁도 단단하게 뭉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뭉치면 승리한다!

그동안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은 승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대법원이 '미래의 경영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조치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마당에 어떤 사업장도 정리해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나 피엘에이는 자본이 광구개발로 경영위기를 자초한 상황이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언제든 정리해고를 해도 되는 사업장으로 보였다. 피엘에이지회는 정리해고에 맞서서 단결된 투쟁을 전개했다. 해고자, 비해고자가 갈라지지 않았다. 아침 출근투쟁은 물론 전면파업도 함께

진행했다. 현장 조합원과 정리해고된 조합원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결의를 끝까지 지켰다. 단단히 하나로 뭉친 지회에 자본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다. 결국 먼저 정리해고 철회 이야기를 꺼낸 것도 피엘에이 자본이었다.

현장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정리해고 철회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지회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부 올리기로 합의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산량에 대해서 시행과 정에서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이현우 공장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피엘에이 자본이 이번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정말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공장장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댄 자와 같은 공장 안에서 일할 수는 없다.

※ 투쟁승리 문화제 : 3월 13일(금) 18시, 피엘에이

금속노조 39차 임시대대, 4월 총파업 결의

금속노조가 3월 3일 열린 39차 임시대대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2015년 투쟁요구와 계획을 확정하고 4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올해 ▲모든 해고금지, 충고용 보장 ▲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확대 ▲통상임금 확대, 생활임금 보장, 최저임금 일만원 보장 ▲재벌특혜 중단, 서민증세 철회 등 민생파탄 정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연금개약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등 투쟁 7대 요구를 걸고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메뉴얼, 지침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대대에서는 기업지부 해소를 2017년 9월까지 유예하고 10기부터는 경주, 구미, 포항지부를 경북지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및 전국제조부문 노동자대회

2015년 3월 11일(수) 14시, 서울역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314 희망행동

2015년 3월 14일(토) 15시, 평택 쌍용차 굴뚝농성장